

세계 스타트업 한국으로... '투자유치·미래의 꿈' 함께 모색

컴업 2020 개막

코로나 이후 스타트업 미래 주제 투자설명회·학술대회 등 마련 '2020 재도전의 날' 행사 진행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으로 모였다.

대표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컴업(COMEUP) 2020' 통해 기업을 알리고, 투자를 모색하고, 미래의 꿈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세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기대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을 넘어 데카론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방역, 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 원격근무,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경기 일산 CJ ENM 일산제작센터에서 열린 '컴업 2020' 개막식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0'이 경기 일산 CJ ENM 일산제작센터에서 19일 오전 개막식을 갖고 사흘간의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개막사에서 "컴업 2020'은 K-방역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IT) 기술을 바탕으로 해온 라인·비대면방식으로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면서 "올해 컴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K-스타트업과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개막식 전체 영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컴업 2020 공식 누리집'과 컴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이후는 온라인과 비대면의 시대가 오고 비대면 방식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플랫폼 경

제는 궁극적으로 프로토크 경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이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컴업 2020은 '코로나 이후 스타트업의 미래를 만나다 (Meet The Future -Post Pandemic)'는 주제로 21일까지 펼쳐진다.

주요 행사로는 ▲스타트업이 겨루는 온라인 투자설명회(IR) ▲케이(K)-방역, 원격근무, 커머스 등 12개 분야별 학술대회 ▲인공지능(AI)챔피언십, 케이(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시연회, 케이(K)-스타트업 왕중왕전 등 특별행사 ▲성공한 청년 최고경영자(CEO)들이 청년 창업가를 발굴·멘토링하는 청청콘 최종 발표 등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행사로 꼽히는 '스타트업 온라인 기업설명회(IR)'에는 120개 스타트업이 참가해 최종 경쟁을 벌

이게 된다. 앞서 9대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이들 스타트업 중에는 미국 스파이어글로벌, 스페인 월박스 등 300억원 이상 투자유치에 성공한 6개사가 포함됐다.

또 분야별 학술대회에는 오픈이노베이션의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미국 버클리대의 헨리 체스브로 교수,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시대의 기반기술로 통하는 양자 컴퓨팅 관련 스타트업인 아이온큐(Q)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듀크대의 김정상 교수, 마켓컬리의 김승아 대표, 씨제의 천종윤 대표, 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 대표 등이 강연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엔 컴업 2020의 특별 행사로 '2020 재도전의 날' 행사도 펼쳐졌다.

행사에선 재도전 기념식(유공포상, 공모전 시상 등), 재도전 사례발표, 토크콘서트, 재도전 투자 설명회(IR) 등을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

"산재보험 막는 대리점, 재계약 안한다"

집배점 관련 부정행위 엄중 처리 "강압적, 일방적 적용제의 여부 관리"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률이 30%에도 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의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대리점(집배점)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 주체인 집배점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엄중 처리한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일환으로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늘리고, 사회안전망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CJ대한통운과 계약한 집배점은 현재 2000여 개다. 활동하는 택배기사는 2만여 명이다.

CJ대한통운이 집배점과 택배기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0%, 산재 적용제의 신청률은



지난달 22일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부장 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환경 개선책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부장, 최우석 CJ대한통운 택배본부장, 한광섭 CJ대한통운 커뮤니케이션실장. /뉴스1

27.9%로 나타났다. 입직신고 미진행 비율은 45.1%였다. 다만 업계 전체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률은 18.5%로 CJ대한통운이 다소 높았다.

산재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가입되며,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내년부터 집

배점이 택배기사에게 강압적,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의 신청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집배점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회사와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데 현재 상품절도, 택배운임 횡령 등 주요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집배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산재 적용제의 강요'를 부정행위 항목에 추가해 계약해지 조항에 삽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셀리턴,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사업' 선정

개인 맞춤형 스마트 LED마스크 개발

셀리턴이 '2020년도 제2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에 맞춰 범부처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연구 프로젝트다.

셀리턴이 선정된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의료 환경 선도' 분야 과제다. 셀리턴은 이를 통해 '딥러닝 피부 상태 분석 플랫폼 기반 개인 맞춤형 스마트 LED 마스크 기기 및 서비스 개발' 과제에 착수한다.

이번 연구에는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이 공동 참여하며 총괄은 셀리턴이 맡는다.

이번 연구 사업은 약 4년 4개월 프로젝트로 안면 피부상태 분석을 위한 다중 광학 영상기술 개발과 개인맞춤형 스마트 LED 마스크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한 임상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에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등을 포함해 약 42억원을 투입한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소진공, 세계-韓 경제전망 토론회 개최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생존전략 모색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시대 소상공인들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일 서울 마포 중소기업중앙회 DMC홀에서 '미래 보는 2021~2024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란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전망 ▲한국경제 전망 ▲소상공인경제 및 산업 전망 ▲미래의 소상공인 성장유망업종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회로 구성됐다.

발표는 미래전략정책연구원 박경식 박사의 '2021~2024 세계경제 전망', 서울여대 노용환 교수의 '2021~2024 한국

경제 전망', IBK경제연구소 이성룡 박사의 '2021~2024 소상공인경제 및 산업 전망',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박사의 '소상공인에 유리한 성장유망업종' 주제가 이어진다.

발표 후 진행되는 토론회에선 김세종 박사(전 중소기업연구원장)가 좌장을 맡고, 이철규 교수(건국대), 박주영 교수(숭실대), 고준성 박사(산업연구원), 김흥기 교수(한남대), 이은청 과장(중소벤처기업부), 김경숙 상임이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지정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진공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달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모든 환경이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동양,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 참여

광화문 광장 동측 도로정비

유진그룹 계열인 동양은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에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서로 나뉘어 있는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를 통합하고 차량중심의 도시구조를 시민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세종문화회관쪽인 광장의 서측도로는 광장에 편입해 보행로를 확장한다. 반대편 미국대사관 앞인 광장의 동측도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 도로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동양은 이 사업에서 광화문 광장 동



측인 교보빌딩~KT 광화문지사~미국대사관~의정부 터(열린시민마당) 일대 도로정비 등을 맡게 되며, 내년 초 준공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양 관계자는 "풍부한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설 전 부문에 걸쳐 역량을 집중해 우수 성과를 올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